

환경정책 상복 터졌다

임실군, 저탄소생활 실천 평가 분야 석권·기관 개인 5개부문 수상

임실군표 환경정책의 우수성이 대내외적인 인정을 받으면서 연이어 상복이 터지고 있다.

군은 최근 옥정호 생태환경복원사업으로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저탄소 생활실천 평가에서 전 분야를 석권하는 쾌거를 거뒀다. 4일 군은 전북도가 주관한 '2018 저탄소 생활 실천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비롯하여 무려 5개 부문의 상을 휩쓸었다.



임실군 신평 청인마을(이장 김금성)이 최우수상을, 성수면 효촌마을(이장 운승호)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저탄소 생활실천은 급속한 지구 환경적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생활에서의 에너지 사용량 감소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주민참여 생활운동이다.

군은 저탄소 실천운동 관련 상을 모조리 휩쓸면서 명실공히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일번지'로서의 임실군의 입지를 탄탄히 굳혔다는 평가다.

여기에는 임실군 환경보호과의 열정적인 환경지킴이 역할이 큰 몫을 해냈다는 평이다. 앞선 '2018 생태하천 복원 우수사례 컨테스트'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 옥정호를 전국적인 생태환경 교육의 장으로 알린 데 이어 탄소배출량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도내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청정임실을 지켜내는데 있어 환경보호와 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2019년에는 우리지역의 모든 세대가 대기전력 제로화를 이루는 원년으로 삼아, 범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저탄소생활 실천 '최우수'

남원시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생활 실천으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남원시는 4일 전주 라후체에서 열린 전북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평가에서 가정·상가 등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들의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확산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최우수 시로 선정돼 도지사 기관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100만원을 받았으며, 금동휴먼시아아파트는 녹색아파트

트 우수상을 수상해 시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저탄소 생활 성과보고회'는 저탄소 생활을 확산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매년 활동 사례를 평가하여 우수한 지자체 및 컨설턴트, 녹색아파트를 선발하고 있다.

또한 남원시는 전체세대의 50%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했으며, 저탄소 생활 실천 캠페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가정·상가 에너지진단을 통해 실질적

인 에너지 절약방법을 안내하는 컨설팅 사업을 총 512곳을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남원시는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주민환경교육, 친환경 체험, 환경체험버스 운영, 기후변화사 진전시회, 에너지환경문화거리 행사, 친환경 명절보내기, 쿨·온맵시 캠페인 등 녹색생활 운동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류장기 남원시 환경과장은 "1년 동안 캠페인과 행사에 적극 참여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문위기 확산과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농기센터, 21일까지 벼 정부 보급종 신청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는 2018년산 벼 정부 보급종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공급되는 보급종 품종은 신동진, 운광, 새누리, 수광벼, 동진찰벼 등 5개 품종 13만3,000kg이다.

군은 마을 이장을 통해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신청 받고 있으며, 공급량이 확정되면 각 지역농협을 통해 내년 3월 중순경에 공급할 예정이다.

농가들은 내년도 공급비축미 매입 품종을 신동진벼로 선정할 만큼, 종

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량종자 채종포산과 농가 자율교환으로 종자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벼 종자 자가채종 및 자율교환 농가는 올해 생육후기에 계속된 강우와 흐린 날씨로 인해 내년도 키다리병 발생을 감안하여 충실한 벼종자 선택 및 종자소독과 육묘관리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벼 우량종자 보급을 위해 채종포 11ha를 운영하고, 신동진 등 4개 품종의 벼 우량종자 5톤을 자율교환 실시했다.

다. 특히 농가가 자가채종 종자 사용시 문제가 되고 있는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 각 읍면 농민상담소에 벼종자 온탕소독기를 설치해 1,140농가에 140톤 종자를 소독했다.

또한 키다리병 방제약제를 면적 4,300ha에, 8,800만원을 지원해 못자리는 물론 분담에서도 키다리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종자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 또는 순창군 농업기술센터(063-650-515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주거복지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순창군,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추진 결실

순창군이 4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에서 주거복지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협회 등 민간기관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지자체 등의 주거복지사업 추진사항과 개선노력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 포상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순창군은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최근 3년간 주거급여로 매월 500여가구에 주거급여 전·월세비 14억여원의 현금을 지원했다.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사업으로 ▲수선유지급여, ▲저소득계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농촌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다문화지역의 모든 세대가 대기전력 제로화를 이루는 원년으로 삼아, 범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이외에도 기타 취약계층에게는 임대보증금으로 총 107가구에 1억 4,400만원을 무이자로 용자 지원했으며, 유관기관(LH)과 연계한 주거복지설명회 개최 협조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홍물로 방치된 농촌빈집 312동에 지난 3년동안 7억여원을 지원해 철거를 진행했으며, 주택개량사업으로 신축 268가구를 저리용자로 지원했다. 그 외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연속 공모선정된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59억여원을 투입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맞춤형서비스를 위해 긴급한 주민요구에 즉각 화답할 것"이라며 "나 뿐만 아니라 이웃도 행복해지고, 모두가 행복한 순창의 따뜻한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빈집 리모델링

사업 무상 공급

남원시는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희망하루스 빈집재생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2,000만 원까지로 임대시 소유주는 입주대상자에게 5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야 하며, 입주대상자는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이다.

빈집재생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건축과(620-6593)에 문의하면 되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빈집의 우범화를 막는 한편,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 및 귀농·귀촌인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그동안 1억 500만원을 지원해 모두 11가구를 리모델링해 수요자들에게 공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파출소

교통사고 예방 홍보 강화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 운봉파출소(소장 권용용) 4일 운봉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치안고객만족도향상 및 농산물 도난예방·교통사고·전화사기·빈집털이절도 등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쳤다.

또한 내년 1월까지 읍·면 주민자치회 안전파·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에 대해 설명하고, 각종 전화사기 피해예방 요령과 범죄에 의심 가는 사람이나 차량 등을 목격하였을 때에는 신속한 112 신고를 당부했다.

특히 동절기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만들기에 노력했다.

한편 권용용 파출소장은 "치안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민들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치안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농업인재학당이 학원위탁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임실농업인재학당 학원위탁 수강생 모집

임실농업인재학당이 오는 20부터 24일까지 학원위탁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농업인재학당 학원위탁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정 학생과 농업인재학당에 선발되지 못한 차순위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수학, 영어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위탁 수업을 받게 되며, 초등학생은 월 12만원, 중학생은 월 15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합격자 발표는 이달 28일 임실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농업인재학당 개강에 맞춰 내년 1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학원위탁 프로그램 수강생 선발 공고 및 응시원서는 홈페이지(<http://www.imsil.go.kr>) 임실소식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임실농업인재학당(☎063-643-95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